

<2012년 2월 1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미리 하면 많이 주신다.

2. 돌 값이 금값이 되기 전에 미리 돌을 사다가 돌을 쌓았기에 월명동 돌 조경이 된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돌이 원수라고 밭에서, 논에서 캐 가라고 할 때였다. 예수님은 “돌이 금값이다. 받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저 주고 시기한다. 밥상돌은 정말 값이 나가는 돌이다. 지금은 어디를 가도 그런 돌이 없다. 더 가치가 있는 이유는 선생이 10대 때 올라가서 놀았던 사연이 있는 돌이기 때문이다. ‘사연’이 ‘값’이다. 밥상돌은 다른 말로 ‘아내 돌, 부인 돌’이다. 주님의 아내요, 부인인 선생에게 주님이 그 돌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나는 주님의 신부니까.)

3. 미리 했기에 땅에서 돌을 거저 주어다 돌을 쌓았다. 지금은 돈을 쥐도 없고, 찾아도 없다.

4. 좋은 열매를 가을에 찾느냐. 잎, 꽃, 열매가 열기 전에 봄부터 과일나무에 퇴비하여 나무를 정성껏 키워야 가을에 좋은 열매를 얻는다.

5. 그동안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옥적 휴거를 하고 끝나 가는데, 저 소경들은 이제야 휴거한다고 준비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의 때’에 행하지 않으신다. ‘하늘의 때, 하나님의 때’에 행하신다.

6. 미리 하면 혼자 해도 할 수 있고, 닥쳐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도 못 한다. (월명동에서 제일 비싼 돌은 사연이 많은 돌이다. 주님과 나와의 사연이 얹힌 돌이 가장 값이 나간다. 큰 것이라도, 비싼 것이라도 사연이 없으면 값은 돌 값뿐이다. 사람도 주님과 사연이 많은 자가 더 가치 있다.)

7. 미리 하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고, 늦게 하면 큰 돈으로 해야 된다. 더 늦게 하면 큰 돈을 쥐도 못 한다.

8. 동그래산 정자 옆 소나무는 하나님께서 자연성전에 쓰려고 50년 전부터 미리 기르셨다. (주님이 크게 쓸 자도 미리 택하여 관리하고 키웠다. 주님이 기르셔도 모르고 홀대하기에 다른 자를 택하여 그같이 기른 것이다. 아기 같은 자도 키우면 커서 아기들을 본다.)

9. 월명동은 미리 개발했기에 배고플 때 밥 먹듯이 오늘날 자연성전으로 귀히 쓴다.

10. 그때 미리 못 했다고 지금 이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안 하고 지금 그 일을 하겠느냐. 주님은 항상 범사에 미리 행하신다.

11. ‘신(신발)’은 어디에 가기 전에 미리 신듯이, ‘신(神)’은 항상 미리 행하신다.

12. 미친개가 물려고 하니, 먼저 개를 발로 차서 개 이빨이 빠졌다. 그래서 못 물었다. (삼

화)

13. 가라지가 싹이 나서 곡식의 퇴비를 빨아 먹으려 하여 그 싹을 뽑아 버렸다. 그러니 못 빨아 먹었다. (삼화)

14. 모기가 물어뜯으려 몸에 앉기 전에 미리 알고 잡았다. 그러니 못 물었다. 사탄도 미리 알고 잡아야 하는데, 모르면 물리고 해 받을 것을 다 받는다. 행악자들도 그러하다. (삼화)

15. 약한 동물들도 강한 야수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도망가서 평생 살아남는다.

16. 강자 앞의 약자는 미리 알고 행하는 것이 이기는 비법이다.